

■ 대담 ■

‘마음의 탈식민화’를 위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인 다이아나 퍼러스와 사라 바트만

오승은



시인 다이아나 퍼러스(Diana Ferrus)를 만나고 왔다. 퍼러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시인이자 인종분리정책(Apartheid)의 폐지를 위해 평생을 투쟁해온 운동가이다. 퍼러스 시인은 인천문화재단이 주최한 ‘인천 아알라(AALA·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문학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011년 4월 한국을 찾았다. 나는 한국 방문이 두 번째라는 퍼러스 시인의 강연 통역도 하고, 짧지만 인터뷰도 하면서 지난하면서도 역동적인 아프리카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단초를 얻게 되었다.

퍼러스 시인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서구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의 대명사가 된 사라 바트만(Sara Baartman)의 시신 반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면서부터이다. 사라 바트만은 1810년 영국의 노예상인 찰름에 속아 남아프리카를 떠나,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유럽 대도시에 끌려다니며 전시되다 25살의 한 많은 생을 마감한 비운의 여성이다.¹⁾ 퍼러스

1) 사라 바트만의 원래 이름은 사기 바트만Saartjie Baartman이었다. 그러나 이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백인 노예 상인들은 자신들이 부르기 쉬운 데로 사라 바트만이라고 바꿔 불렀다. 이러한 식민지 시대 영향은 아직도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름에 남아 있는 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의 성이 January, February 등등 달 명칭이라고 한다. 이들의 원래 이름을 제대로 따라 부를 수 없었던 백인 노예 상들이 노예 매매가 이루어진 달의 이름을 붙여 버린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Mr. January, Mrs. February 하는 식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시인은 1998년 바트만을 위해 <나, 당신을 고향에 모시러 왔나이다 I've come to take you home>라는 시 한 편을 썼고, 이 시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어 바트만의 시신이나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사라 바트만은 내게도 친근한 인물이다. 우연한 기회에 EBS의 e지식채널 프로에서 방영된 <이상한 쇼(freak show), 사라 바트만> 편을 보게 되었다. 바트만의 비극적 생애에 충격을 받은 나는 그 이후 매학기 초 영어통역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학생들에게 사라 바트만 얘기를 전해줬다. 수강생들에게 바트만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배우고 있는 영어는 사라 바트만을 거리의 전시품으로 내몬 저 제국의 언어입니다'라는 부연설명을 단다. 그러는 사이 진지해지는 수강생들의 눈빛을 지켜보며, '영어를 배운다고 서구 헤게모니에 세뇌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내 소망이 전달됨을 느꼈었다. 그러던 차,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고정갑희 선생님을 통해 사라 바트만의 시신을 고향으로 데려오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퍼러스라는 시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한신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강연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나는 두 말하지 않고 퍼러스 시인의 통역을 맡겠다고 나섰고, 5월 2일 퍼러스 시인의 한신대 강연을 2시간가량 통역했다. 퍼러스 시인의 강연은 강연이라기보다는 한 편의 퍼포먼스 공연 같았다. 강연 중간 중간 시를 낭송하고, 1954년 흑인의 도심 통행증 폐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벌인 시위 현장에서 불렀던 데모 송을 불러주면, 청중들은 따라 부르고... 어렵고 지난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였지만, 열정적인 퍼러스 시인의 퍼포먼스 같은 강연을 통해 감동적으로 그리고 생동감 있게 배울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생전처음으로 눈물을 애써 참으며, 목소리에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기를 쓰며 통역을 해야 하는 흥역을 치르기는 했지만...

사라 바트만의 이야기는 영국의 아프리카 식민 정책이 한참 극성기에 달하던 18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에 가면 일자리도 찾고 돈도 벌 수 있다는 노예상인 윌리엄 던롭(William Dunlop)의 꾀에 넘어가, 사라 바트만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된다. 3개월의 긴 여정 끝에 런던에 도착했지만, 런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좋은 일자리도 많은 돈도 아닌, 자신을 동물처럼 가둔 우리였다. 새장 속의 새처럼 우리에게 갇혀 런던 시내 한복판 피커딜리 서커스에서 벌어진 퍼레이드에 끌려 다니

‘마음의 탈식민화’를 위하여

며 돈벌이에 동원되었다. 엉덩이가 백인보다 조금 낮은 곳에 좀 더 튀어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그런 동물 같은 생활을 4년이나 한 후 이번에는 다시 파리로 끌려갔다. 파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참한 생활이 이어졌고, 그 비참한 삶을 견디다 못해 사라 바트만은 25살에 한 많은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사라 바트만의 죽음조차도 인간이 인간대접을 받지 못하는 비극에 종지부를 찍지는 못했다. 바트만의 시인은 나폴레옹 시대의 유명한 해부학자 퀴비에(Georges Cuvier)의 손에 넘겨져 해부 되었다. 생식기와 뇌를 빼내 포르말린에 넣고, 나머지 신체는 박제로 만들어져 유리 상자에 넣어진 채 1986년까지 프랑스 박물관에서 전시되었다. 쿠르베는 인간과 동물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찾는다는 명목으로 그녀의 뇌의 사이즈는 얼마이고, 허벅다리는 몇 cm라는 수 십 페이지에 달하는 해부학 보고서를 썼다. 살아생전엔 노예상인과 인간 전시업자로 대표되는 자본에 의해 생물학적 죽음으로 내몰렸다면, 사후엔 근대 문명의 꽃이라 불리는 과학자의 손에 자행된 인격말살의 굴욕을 겪어야 했다.

퍼러스 시인이 사라 바트만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녀가 네덜란드의 우트레흐트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1998년 6월이었다. 우연히 유리 상자에 박제된 채 갇힌 사라 바트만의 사진이 있는 우편엽서를 보게 되면서였다. 그 잔혹한 야만성에 눈물을 흘리며, 시 한편을 썼다. 바로 <나, 당신을 고향에 모시러 왔나이다 I've come to take you home.>이다. 우선 그 화제의 시를 감상해보도록 하자.

I've come to take you home

I have come to take you home, home!
Remember the veld,
the lush green grass beneath the big oak trees?
The air is cool there and the sun does not burn.
I have made your bed at the foot of the hill,
your blankets are covered in buchu and mint,
the proteas stand in yellow and white
and the water in the stream chuckles sing-songs

as it hobbles along over little stones.

I have come to wrench you away,
away from the poking eyes of the man-made monster
who lives in the dark with his clutches of imperialism,
who dissects your body bit by bit,
who likens your soul to that of satan
and declares himself the ultimate God!

I have come to soothe your heavy heart,
I offer my bosom to your weary soul.
I will cover your face with the palms of my hands,
I will run my lips over the lines in your neck,
I will feast my eyes on the beauty of you
and I will sing for you,
for I have come to bring you peace.

I have come to take you home
where the ancient mountains shout your name.
I have made your bed at the foot of the hill.
Your blankets are covered in buchu and mint,
the proteas stand in yellow and white –
I have come to take you home
where I will sing for you,
for you have brought me peace,
for you have brought us peace.

(Tribute to Sarah Baartmann written in Holland, June 1998)

‘마음의 탈식민화’를 위하여

나, 당신을 고향에 모시러 왔나이다.

다이아나 퍼러스 작 / 이 석 호 역

나, 당신을 고향에 모시러 왔나이다, 고향에!
그 너른 들판이 기억나시는지요,
커다란 너도밤나무 밑을 흐르던 빛나는 푸른 잔디를 기억하시는지요?
그곳의 공기는 신선하고, 이제는 더 태양도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나, 언덕 기슭에 당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나이다.
부추 꽃과 민트 꽃들로 만발한 이불을 덮으소서.
프로티아 꽃들은 노랑고 하얀 모습으로 서 있고,
넷가의 시냇물은 조약돌 너머로 조잘조잘 노래를
부르며 흐르나이다.

나 당신을 해방시키러 여기 왔나이다
괴물이 되어버린 인간의
집요한 눈들로부터
제국주의의 마수를 가지고
어둠 속을 살아내는 괴물
당신의 육체를 산산이 조각내고
당신의 영혼을 사탄의 영혼이라 말하며
스스로를 궁극의 신이라 선언한 괴물로부터!

나, 당신의 무거운 가슴을 달래고,
지친 당신의 영혼에 내 가슴을 포개러 왔나이다.
나, 손바닥으로 당신의 얼굴을 가리고,
당신의 목선을 따라 내 입술을 훔치려 하나이다.
아름다운 당신의 모습을 보며 흥겨운 내 두 눈을 어찌 하오리까,
나, 당신을 위해 노래를 하려 하나이다.
나, 당신에게 평화를 선사하러 왔나이다.

나, 당신을 고향에 모시러 왔나이다,
오래된 산맥들이 당신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는 곳으로.
나, 언덕 기슭에 당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나이다.

부추 꽃과 민트 꽃들로 만발한 이불을 덮으소서.
프로티아 꽃들은 노랑고 하얀 모습으로 서 있고,
나, 당신을 고향에 모시러 왔나이다.
그곳에서 나, 당신을 위해 노래를 하려 하나이다.
내게 평화를 선사한 이, 바로 당신이기에
우리에게 평화를 선사한 이, 바로 당신이기에.

<사라 바트만을 위한 헌시 - 1998년 6월 네덜란드에서>

다행히도 이 시에 담긴 퍼러스 시인의 소원은 마침내 현실로 실현되었다. 그녀의 시 <나, 당신을 고향에 모시러 왔나이다>는 남아프리카에 널리 회자되었고, 그 이야기가 한 프랑스 상원 의원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다. 시에 감명을 받은 그 프랑스 상원의원은 그 후 시신 반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프랑스 법률에 따르면 박물관에 소장된 모든 전시물은 국가 귀속이므로 함부로 반환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사람의 시신이건만 전시품이라는 이유로 사람이 아닌 물건(artifact) 취급을 받은 것이다. 2001년 새로운 법안이 프랑스 상원에서 통과되기 전날 퍼러스 시인과 그녀의 지지자 수백 명은 사라 바트만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그녀가 유럽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올랐을 언덕에 올라가 향을 피우며 제를 올렸다고 한다. ‘제발 돌아올 수 있게 해 달라’고. 다행히 그 꿈은 현실이 되었다. 2003년, 집을 떠난 지 190여년이 흐른 후의 일이었다.

사라 바트만이 프랑스 박물관에 박제가 된 채 서 있는 동안 그녀의 고향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악명 높은 인종분리 정책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가 계속 되었다. 1950년 시행된 ‘집단구역법(Group Areas Act)’으로 한 가족이 강제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다. 사람들을 백인, 인디언, 유색인, 흑인 이렇게 4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정해진 지역에서만 살게 하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이 시행됨에 같은 가족이라도 피부색이 다른 경우 할머니와 손자, 어머니, 아버지와 아들, 딸 등이 따로 떨어져 살아야하는 반인륜적 상황이 초래 되었다. 또 물물교환이 기본 경제활동인 원주민에게 세금을 거둬으로써,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기 위해 점차 많은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농토를 떠나야만 하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1994년 넬슨 만델라의 대통령 선출로 인종분리 정책은 종식되

였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서구의 식민 정책과 백인 정부의 인종분리 정책은 흑인들에게 자괴감과 열등감을 심어주었고, 이는 십대 임신, 알코올 중독, 모든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갱스터주의(gangsterism) 등등의 형태로 남아 남아프리카 사회를 옥죄고 있다.²⁾

그런 면에서 사라 바트만의 귀향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긍정적 에너지를 방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분명 사라 바트만은 식민주의의 희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남아프리카의 동포들은 백인들의 인종주의를 내면화하여 그녀에게 ‘돈 밖에 모르는 창녀’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었다. 그러나 바트만의 시신이 남아프리카로 돌아오음에 따라 사람들은 긍정적 이미지를 회복하여 바트만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남아프리카 사람들이 동 케이프에 묻은 것은 바트만의 시신뿐만이 아니라, 상징적으로는 그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뿌리 깊게 식민화된 마음도 같이 묻는 계기를 찾았기 때문이다. 사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결국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였기에,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버릴 수 있는 계기를 찾은 것이다. 사라가 돌아오고 나서 퍼러스 시인은 사람들의 변한 모습을 거리에서 매일 같이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슈퍼마켓이나 거리에서 퍼러스 시인이 지나가면 일부러 다가와 ‘고맙다’는 인사를 연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라의 귀환이 가져온 긍정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녀가 말하는 ‘마음의 탈식민화(decolonization of mind)’를 이루는 길고도 지난한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된 셈이었다.

퍼러스 시인을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얘기를 듣고 난 후 내 생각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탈식민화’로 흘러갔다. 퍼러스 시인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처럼, 우리 한국에서도 ‘마음의 탈식민화’는 이미 성취한 과업이 아니라 앞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의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퍼러스 시인이 말 한대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탈식민화’를 위한 우리 나름의 계기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아니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늦은 봄 퍼러스 시인과의 인상 깊었던 만남은 그렇게 새로운 숙제를 남겨주었다.

2) 갱스터주의(gangsterism)는 노예 매매 시대의 또 다른 유제이다. 흑인들은 백인 노예 상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야했고, 이를 위해 무리를 지어 자경단을 조직했다. 그런 관습은 시간이 흐르면서 갱스터주의로 변질되었고, 계속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